

# 2019년 노사관계 전문교육 과정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2019. 5.

# 목 차

---

결 과 요 약 .....	1
1. 국외연수 개요 .....	2
2. 국외연수 참가결과 .....	3
[붙임]	
1. 국외연수 주요사진 .....	9

## 결 과 요 약

### ☐ 국외연수 개요

- 연 수 명: 2019년 노사관계 전문교육 과정 中, 국외연수
- 연수기간: 2019. 4. 17.(수)~4. 25.(목), 7박 9일간
- 연수장소: 독일 베를린, 스위스 제네바
- 주최기관: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 참 가 자: 총 25명-서울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참여기관  
노사관계자(서울시 투자·출연기관임직원·노동조합원 및 관계 공무원 등)

### ☐ 주요 성과

- 국외 유관기관 방문으로 국제적노동환경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
  -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방문 및 담당자 협의
  - 국제공공노조연맹(PSI,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방문 및 담당자 협의
  - 독일 IG-BAU(건설노동조합) 방문 및 담당자 협의
  - 독일 Ver.di(통합공공서비스노동조합) 방문 및 담당자 협의
- 4차 산업 혁명 관련 강연으로 노사정협의회의 역할을 탐구함
  - 강연1: 하승창 (前 서울시 정무부시장)
  - 강연2: 이승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1 국외연수 개요

## □ 노사관계 전문교육 과정

-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협력과 신뢰의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문교육과정 운영
- 교 육 명: 2019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관계 전문교육과정
- 추진방식: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자체추진
- 주요 내용 :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3단계로 진행
  - 1차 교육 : 방문기관과 제도에 대한 이해, 사전 질문지 작성 및 송부
  - 국외 연수 : 독일, 스위스의 정부·노동단체 등 유관기관 방문 및 강연
  - 2차 교육 : 국외연수결과 정리 및 발표

## □ 국외연수 개요

- 연 수 명: 2019년 노사관계 전문교육 과정 中, 국외연수
- 연수기간: 2019. 4. 17.(수)~4. 25.(목), 7박 9일간
- 연수장소: 독일 베를린, 스위스 제네바
- 주최기관: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 참 가 자: 총 25명-서울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참여기관 노사관계자(서울시 투자·출연기관임직원·노동조합원 및 관계 공무원 등)

## 2 국외연수 참가결과

### □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면담자 : 이상현 (Director, Employment Policy Department)
- 면담일시 및 장소 : 2019.4.23 (화), 스위스 제네바
- 주요내용

- ILO 소개 :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연맹의 기구로 1919년 설립되어 올해 100주년임. 1946년 유엔의 전문기관으로 편입되었고, 196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함. ILO는 187개 회원국(193개 유엔 회원국 중 186개국과 쿡 아일랜드가 ILO 회원국)의 정부, 고용주 및 근로자 대표가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노동 기준을 만드는 UN 유일한 3자 기구임. ILO는 국제 노동표준을 수립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발전시키고 올바른 노동을 촉진하며 노동 통계의 주요 공급자 역할중임. 또한 ILO는 노동 시장의 핵심 지표(KILM)와 같은 많은 노동 통계 자료를 출판함.

- ILO는 '노사정'이 함께 하는 것이 주요 작동 원리임. 다만, 지금 방식이 최선인지? 앞으로를 생각하며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 이는 2017년 ILO's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

## □ 국제공공노동조합연맹 PSI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 면담자 : Daria Cibrario (Policy Officer,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Sector and MNEs)

○ 면담일시 및 장소 : 2019.4.23 (화), 스위스 제네바

### ○ 주요내용

- 노조 소개 : ‘People Over Profit’를 모토로 1907년 설립되었으며, 공공 부문 노동조합의 세계 연맹체로 ‘국제공공노련’으로 줄여 부르기도 함. 세계 163개국, 650개 노동조합, 2000만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으며, 국제 연합 조직과 함께 일하고 노동, 사회부문과 다른 연합체와 협력하고 있음. PSI는 전 세계 기업의 공공 서비스 민영화 반대 운동에 참여.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수호하며, 누구나 쉽게 우수한 공공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을 모토로 국제 연합 조직과 함께 일하고 노동, 사회 부문과 다른 연합체와 협력하고 있음.

### - 최근 이슈

1. 공공 서비스에 디지털 기술 도입
2. 전문직 프로파일, 고용 및 근무 조건에 미치는 영향
3. 노동자 권리 및 노동조합에 대한 영향
4. 공공 서비스 품질 및 사용자 액세스에 미치는 영향
5. 규제 도구 및 프레임워크에 대한 고려사항

## □ 독일 IG-BAU (건설노동조합)

- 면담자 : Christian Stephan (지부장), Christie Heydrich (기금담당) 외 2명
- 면담일시 및 장소 : 2019.4.18 (목), 독일 베를린
- 주요내용
  - 노조 소개 : IG BAU는 건축 및 엔지니어링, 건축 자재, 빌딩 청소, 설비 관리, 원예, 임업 및 농업 분야 등 건설과 관련된 모든 부문을 망라하는 연합 노조임. '96년 DGB 산하 기업인 Industrieergewerkschaft Bau-Steine-Erden (IG BSE)과 Gewerkschaft Gartenbau-Landwirtschaft-Forsten (GGLF) 합병 설립됨.
  - 주요 활동 : 임금교섭의 경우, 노조가 대표로 집단교섭을 실시함. 여기엔 휴가나 연금 등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음. 균형임금을 위한 공공기금을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이를 토대로 '휴가금고', '방학금고-겨울비수기 보완', '부가연금' 등을 운영함. 최근 노조는 디지털화에 따른 대응, 노사관계의 자율성 확보, 건설 전문 인력의 확보 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노조원 감소 추세를 막기 위해 조합원 직접 접촉을 늘리고 있음.

## □ 독일 Ver.di 노동조합 (공공서비스노동조합)

- 면담자 : Dr. Hartmut Simon (미디어 담당)
- 면담일시 및 장소 : 2019.4.19 (금), 독일 베를린
- 주요내용

- 노조 소개 : ‘Ver.di’는 독일 최대 노동조합으로 통합서비스노조임. 과거 독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ÖV), 언론매체노조(IG Medien), 체신노조(DPG), 상업은행보험노조(HBV)와 상급조직을 달리하는 독일사무직노총(DAG)이 수년에 걸친 논의과정을 거쳐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됨. 약 1,000개 직종, 30개 업종을 포괄하는 단일 노조로 베를린에 중앙본부가 위치하며, 각 주마다 주별 본부, 그리고 그 하위로 각 지방의

지회(연락사무소: Verwaltungsstelle)를 설치, 운영함. 공공부문의 경우 단체교섭이 전국수준으로 중앙화되어 있어, 지방지회들이 단체교섭에서 역할을 독자적으로 전면에서 수행하지는 않음. 또한 노조 내부는 매트릭스 구조로 여러 주제별 분과(Fachbereich)들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대규모 범주 하에서 매우 다양한 부문들을 포괄하는 통합노조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임.

- 공공부문의 노동자의 임금결정 방식 : 노동조합은 통합서비스노조 (Ver.di)로 합쳐지고, 임금협약도 일원화시킴. 공공서비스부문의 단체교섭은 기업이나 지역차원이 아니라, 연방차원의 단일교섭 형태로 진행하며 사용자들은 연방차원에서 공공서비스부문 노동조합과 교섭하기 위해 공공사용자 공동 교섭단을 구성함. 공동 교섭단은 연방정부, 자치주,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각 8인씩의 대표들로 구성되고, 교섭단의 대표는 연방 내무부 장관이 역임함.



## □ 강연1. 독일 사회의 이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는?)

- 강연자 : 하승창 (前 서울시 정무부시장)
- 면담일시 및 장소 : 2019.4.20 (토), 독일 베를린
- 주요내용

- 베를린 : 베를린의 경우, 한 사람이 16년씩 도시계획을 맡아 계획을 일관되게 하고, 전통 건물을 훼손하지 않음. 가장 베를린스러운 공간이며 유명한 장소로 알려진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의 경우, 분단 장벽을 보존하여 그림을 그려 문화나 예술을 입혀서 전혀 다른 공간으로 창출됨.

- 베를린의 주거 : 베를린도 고령화분제가 대두되고 있음. 주택협동조합이 공급해서 임대료가 싸고, 노인들은 주로 동네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다보니 동네 가게가 잘 망하지 않음. 자연스럽게 공동체, 사회안전망 이런 것들이 결합된 도시라고 봄.

- 4차 산업혁명: 독일에서는 디지털화를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김. 당연히 고용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우선 과제로 여기는 것이 이에 따른 노동자 교육임. 하지만 우리는 노조도, 기업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프로세스에 대한 생각이 없음. 싸워서 요구해서 획득한다는 사고가 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하는 프로세스가 없음. 우리도 논의 공간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 강연2. 변화하는 노동시장, 복지국가의 지체 그리고 사회안전망의 부정합

○ 강연자 : 이승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면담일시 및 장소 : 2019.4.21 (일), 독일 베를린

○ 주요내용

- 4차 산업혁명과정에서 발견되는 생산방식의 변화와 불안정 노동의 확산의 본질은 자본주의의 질적 변화 속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음. 특히, 이러한 변화에서 전통적 산업사회의 고용관계 및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당성이 변화되고 있음. 자본은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해 파견, 용역 등 고용을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표준적 고용관계를 해체함으로써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켜 옴. 이러한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전통적 산업사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복지제도가 현실과 부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복지정책의 제도적 지체', 그리고 이로 인한 '새로운 배제'를 유발시킬 수 있음.

- 21세기의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변화로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되었음. 특히, 서비스 부문 일자리가 주로 저숙련, 비정규직 위주로 확장됨으로써 여성, 노인, 이주자, 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서비스 부문의 노동 수요를 충당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 산업사회와는 다른 고용 형태 및 일의 형태들이 등장하여 20세기에 만들어진 복지국가가 더 이상 21세기의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변화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음.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공공노동조합연맹 PSI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국제공공노동조합연맹 PSI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강연1. 하승창 (前 서울시 정무부시장)



강연1. 하승창 (前 서울시 정무부시장)





독일 IG-BAU (건설노동조합)



독일 IG-BAU (건설노동조합)



독일 Ver.di (통합서비스노동조합)



독일 Ver.di (통합서비스노동조합)



강연2. 이승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연2. 이승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